



오직 예수

라비 재커라이어스 지음 | 이상준 옮김 | 두란노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홀로 절대성을 고집하며 타 종교와 통합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저자인 라비는 세계적인 명망의 기독교 변증가로 수만 개의 신이 존재하는 나라 인도에서 태어나 회심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그가 경험한 다양한 종교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다원주의적 분위기에 조목조목 반박한다. 예수님과 이외 다른 종교 주창자들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을 여섯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한다. 오늘날 종교 통합과 탄압에 대한 요구를 받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자는 십 대 시절 내면의 많은 문제로 고민하면서 어디로 가야 답을 얻을지 모르는 깊은 공허함을 가진 소년이었다. 어느 날 밤 시작된 깊은 영적 고뇌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된 이야기로 시작된 1장은 저자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2장부터 7장까지 저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굳게 믿는지 그 이유를 각 장의 6가지 질문,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

닌가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어요.”, “종교는 취향이 아닌가요?”,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인가요?”, “십자가에서 왜 침묵하신 건가요?”, “이 땅의 창조주가 예수인가요?”로 답한다.

왜 꼭 예수인가

라비는 성경이 예수님의 기원을 영원(Eternity)이라 밝힌다고 말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타 종교 주창자들은 신의 부름을 받은 존재일뿐, 스스로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천상을 바라보며 구원을 사모했던 종교 창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한다. 예수님 당시 당대 최고의 종교적 지성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의심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일어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예언하고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권세를 가장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신다.

이어진 세번째 질문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 라비는 종교는 취향이 아닌 생명의 문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신 것을 언급한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 외에 절대자와 절대 진리를 향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갈망이 있으며, 그것은 물질,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영혼은 영원으로부터 왔기에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진다.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길이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다. 예수님만이 인생이라는 미로의 유일한 해답(Solution)이요 구원(Salvation)이시다.

인생의 유일한 답인 예수께 물으라

네번째 질문인 고통에 대해 라비는 기독교세계관은 악을 사랑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니라 미스터리로 본다고 언급하며 고통, 고난, 재난과 하나님의 존재의 양립 문제를 다룬다. 이 고통의 문제를 범신론, 힌두교, 불교와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덕적으로 정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종합하여 여섯 가지 논제로 풀어내는 설명 속에는 기독교 복음의 탁월한 변증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침묵을 말한다. 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더 이상 변호할 가치가 없는 반대자들의 적개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미 선포하신 진리가 충분하고 명확하다, 더 나아가 예언의 성취가 성경의 권위를 보여준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나 깨닫지 못할 뿐이다.

결론

처음 책을 받았을 때, 익숙한 제목이라 쉽게 생각했었

는데 책장을 넘길수록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꼈다. 물론 변증서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 뿐만 아니라 실화, 예화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과 또한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힌두교나 이슬람교의 교리와 비교한 부분을 읽으며 이들 종교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모순과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이슬람교 및 힌두교 등 타 종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진리의 유일함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함을 느낀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 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 라고 말씀하신다.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진리가 상실되는 세상에서 세상은 진리를 자신들의 기지로 해석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판단하지 말고, 오직 진리에 기초해 기독교 메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신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신이 아닌 나를 만드신 신,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라고 묻는 세상을 향해 답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 | 최귀희

일상의 하나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로 삼일교회 집사이자 새가족부 간사로 섬기고 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5년간 IT기업에서 홍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